

동해해수청, 한국전쟁 당시 주문진등대의 기관총 탄환 흔적 조사 착수

동해지방해양수산청(청장 이재영)은 강원도 강릉시에 위치한 주문진등대의 한국전쟁 때 발생한 기관총 탄환의 흔적을 조사하고 복원·보존방안을 수립하는 용역을 2024년 5월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올해로 불을 밝힌지 106년이 된 주문진등대는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12호)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일제강점기인 1918년 당시부터 동해안에서 가장 활발하였던 주문진항구 어선들의 안전항해를 지원해 왔다.

주문진등대는 점토를 석회 등과 반죽하고 구운 벽돌로 쌓아 올려진 구조로 최대 직경 3m, 높이 10m에 달하며, 조형미를 살리고자 출입문을 르네상스 스타일로 축조하여 해양안전시설일 뿐만 아니라 역사적·건축적 가치가 높은 문화시설이다.

이번 용역에서는 기록으로만 전해 내려오는 한국전쟁 당시의 기관총 탄환의 흔적을 과학적으로 샘플링하여 전문기관 의뢰 및 분석을 통해 복원·보존 방안을 마련한다.

동해해수청 관계자는 “주문진등대의 이번 보존사업을 통해 문화재 수준의 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등 해양문화시설을 지속적으로 지켜가겠다.”고 밝혔다.

담당 부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로표지과	책임자	과 장	김동식 (033-520-6271)
		담당자	주무관	현영섭 (033-520-6277)



주문진등대 전경



등대 정면



등대 우측면

□ 위 치

-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옛등대길 24-7(부지면적 4,139㎡ / 약 1,252평)

□ 연 혁

- 1918. 3. 조선총독부 체신국 주문진등대(등대초점등)
- 1945. 8. 미군정청 교통국 목호부두국 주문진등대
- 1955. 12. 해무청 목호지방해무청 주문진등대
- 1976. 3. 항만청 목호지방항만관리청 주문진등대
- 1988. 8. 해운항만청 동해지방해운항만청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 1997. 5. 해양수산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주문진항로표지관리소
- 2006. 12. 해양수산부 등대문화유산 해양수산부지정 제12호

□ 시설물 및 기능

- (건축물) 총 3동 / 등탑(1918년), 사무실('07년), 숙소('02년)
- (광파표지) 15초 1번 점멸하고 광달거리는 20마일(37km)로 불빛의 높이는 기초상 10m, 해수면상 40m
- (음파표지) 안개발생 시 음향을 60초마다 1회 취명하며 음달거리는 2마일(3.7km)
- (전파표지) 위성항법보정기준국(DGPS)으로 항해 선박들에게 오차 범위 1m 이내의 위치보정 서비스 제공
- (해양문화공간) 국민들이 방문하여 쉴 수 있는 공간 조성

* 방문객수 '20년 3만명, '21년 1만명, '22년 5만명, '23년 17만명